

아동양육시설의 주거형태에 따른 식침 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l and Sleeping Activities of Children and Spaces in the Orphanage

권재웅*
Jae-Woong Kwon*

〈Abstract〉

Children of three-to-eighteen-years-old have been brought up in the institution (Orphanage) for several reasons such as family dissolution, divorce and poverty since the Korean War of 1950. The Cottage, where these children are housed and brought up has dining room, living room and bedrooms. Psychological aspects of children are being observed distracted and differentiated to some degree according to the sizes of bedroom floor spaces ranging from 2.3 square meters to 9.0 square meters per child. Since the most facilities were built during the 1950-1960s period, most of the cottages are now in the condition of being rebuilt or remodell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some basic data necessary for design of spaces in the orphanages by exami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meal and sleeping activities of children and residence types.

Key Words : orphanage, meal and sleeping activities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양육시설은 가정파탄이나 부모이혼, 가정빈곤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신체적·정신적장애가 없는 3~18세까지의 아동들을 양육 및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일컫는데, 복지기능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주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설로서 서로 혈연관계가 없는 남녀 아동들이 성인들의 보호아래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이러한 아동양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10개소에 이르고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 면에서는 시설 당 수용인원이 30~170명이며 아동 1인당 면적은 약 22m²이다. 인적조직 면에서는 시설 당 6-12명 정도의 시설종사자로 구성되며 보육사 1명이 약 14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양육기회를 갖지 못하고 시설이라는 특수한 집단생활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수용아동들에 대하여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취침, 식사 등)공간인 숙사와 식당이 지니는 의미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나 아동 발달의 심리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시설환경에 대한 물리적 연구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들이 50~60년대에 지어

* 정회원, 계명문화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工博
704-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700
E-mail : kjw21@km-c.ac.kr

* Dept. of Architecture, Kei Myung College, Ph.D.
700 Sindang-Dong Dalse-Gu Daegu 704-703 Korea

진 것들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개축 또는 신축되어야 할 형편에 있다는 점과 함께 일련의 신·개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만 하더라도 '시설설치기준' 자체가 크게 불비한 상황에서 결과하는 공간 내지 시설의 수준이 사용상의 불편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라이프사이클 면에서 극히 짧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설환경의 개선이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과 함께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주거형태가 시설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취침과 식사행위에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파악하여 아동양육시설의 공간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공간적 특성과 행동특성과의 관련 면에서 주거형태가 시설아동의 일상생활 중 주로 계획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취침 및 식사행위에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한 방법은 먼저 전국 212개 육아시설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및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2개 조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현지답사에 의한 실측, 관찰, 시설직원들과의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주거형태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8개 시설(서울 SOS마을(Cs₄), 대구SOS마을(Ct₁), 신생원(Ct₃), 신에보육원(Ct₄), 에덴원(Ct₇), 임마누엘 육아원(Cb₂), 삼성원(Cb₃), 상주보육원(Cb₈) 등)을 조사대상시설로 선정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식침행위 관찰과 체크리스트에 의한 아동들과의 면담조사(T₁형은 60명, T₂형은 67명, T₃형은 53명, 총 180명)를 실시하여 주거형태에 따른 아동들의 식침행동특성을 조사·파악하였다.

조사대상아동의 연령은 8~10세가 5.5%, 11~13세가 38.4%, 14~16세가 43.3%, 그리고 17~19세가 12.7%로서 초등학생이 36.1%, 중학생이 42.2%, 고등학생이 21.7%이며, 이들 아동의 거주년수는 2년 이하인 아동이 13.9%, 3~5년인 아동이 23.3%, 6~8년인 아동은 34.5%, 9~11년인 아동은 21.7%, 그리고 12~14년인 아동은 6.7%로 나타났다.

2.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 및 공간구성

2. 1. 아동양육시설아동의 속성

1) 아동의 연령 및 학력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2~

22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 중 13~15세의 아동이 남녀 각각 29.6%, 35.5%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12세의 아동이 남녀 각각 23.8%, 21.9%, 16~18세의 아동이 남녀 각각 18.8%, 21.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75.6%가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이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되어서는 안되고, 10대의 특유한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학력은 초등학생이 남녀 각각 37.5%, 3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남녀 각각 29.1%, 32.7%, 고등학생이 남녀 각각 19.5%, 22.3%를 차지하고 있다. 미취학도 남녀 각각 7.0%,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도 남녀 각각 6.5%, 4.1%를 보이고 있다. 아동의 재학정도와 연령분포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육아시설 입소아동 중 안정되지 못한 성장환경으로 인하여 학령 적령기에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놓친 아동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동의 종교

아동들의 종교는 주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법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기독교인 경우가 8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천주교 5.2%, 무교 4.3%, 불교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시설 입소원인과 입소당시 연령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된 원인¹⁾은 빈곤·결손가정아가 남녀 각각 8.1%, 5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미아가 남녀 각각 34.1%,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아는 남녀 각각 6.3%, 7.9%만 보이고 있다. 특히 부모가 양쪽 다 생존해 있는 경우가 평균 41%,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평균 16.5%,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6.5%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정빈곤이나 가정파탄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과거의 아동양육시설은 단순히 전쟁이나 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나 불우아동을 양육·보호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양육시설은 빈곤·결손가정이나 미아, 기아 및 가출아 등 입소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성격 또한 고아에서 가정붕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

1) 입소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이혼이나 별거, 아동 자신의 가출, 부모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부모중의 한쪽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우, 부모 사망, 부나 모가 사망하고 한쪽이 가출했거나 행방불명, 부모 수형, 부모질병, 생활곤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한 아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당시의 연령은 2세부터 16세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4~6세에 입소한 아동이 남녀 각각 36.1%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9세가 남녀 각각 32.0%, 29.7%, 10~12세가 남녀 각각 15.9%, 16.8%로 나타났다.

4) 재원기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재원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17년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재원기간이 6~9년인 아동이 남녀 각각 36.8%, 3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년이 남녀 각각 24.0%, 23.6%, 2년 이하가 남녀 각각 19.3%, 19.8%, 10~12년이 남녀 각각 13.7%, 14%로 나타났다.

5) 가족과의 교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 현재 부모가 살아있는 아동이 58.9%(부모가 다 생존:41.1%, 부만 생존:8.3%, 모만 생존:9.5%)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여부를 모르는 아동도 41.1%(부모사망:14.4%, 모름:26.7%)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가 살아있는 아동 중 31.7%는 현재 부모를 만나고 있으며, 4.4%는 편지나 전화만 하고 있고, 어디 있는지 알지만 연락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는 아동이 17.2%으로 나타났으며, 45.6%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시설아동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양육시설아동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야한다고 지적되고 있다.²⁾ 그리고 켄트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의 규모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14명 정도의 양육인원이 적당하다고 하며³⁾, Burmeister는 집단생활에서는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집단의 크기가 그 질을 좌우하므로 보육사1명당 8명 이하의 양육인원이 되어야한다고 하면서 소규모 생활집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⁴⁾

아동양육시설의 주거가 집단생활을 전제로 할 경우, 우선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의 규모와 구성원편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공동생활의 규모를 가능한 한 가족 집단에 가까운 작은 집단으로 설정하고, 소규모의 생활 단위마다 보육사가 배치되어 독립 운영 방식으로

보호를 행하는 방식과 이러한 형태를 지역사회에 분산 배치하여 일반 주택에서 그룹 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어느 형태이든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이 여러 동의 소규모 주거형태 보다는 1개 동 혹은 남녀별로 1개 동씩 2개 동의 대규모 집단주거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서로 무관한 많은 다른 아동과 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일반가정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양육된다. 부모의 역할은 시설직원에게 의하여 수행되어지고 있는데 보육사 1명당 평균 14명 정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아동양육의 계속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연령과 욕구가 비슷한 아동들이 집단생활을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위집단이 형성되고 아울러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되거나 소외된 아동들도 생겨나고 있다.

52개 조사대상의 경우 한 유닛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구성원은 비슷한 연령(재학정도)의 아동을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는 또래수용형과 취학전의 어린 아동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큰 아동까지를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는 혼합수용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시설 중 20개 시설(37.0%)이 또래수용형(초, 중, 고)을, 그리고 23개 시설(42.6%)은 혼합수용형(초+중+고, 초+중, 중+고, 초+고)을 택하고 있으며 11개 시설(20.4%)은 관리·운영상 또래수용형과 혼합수용형을 복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보육사)와의 면담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구성원편성을 아동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설측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한 아동들의 생활상 측면과 시설운영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또래수용의 경우는 아동관리를 위한 보육사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아동의 생활, 특히 어린 아동들의 생활에 있어서 혼합수용에서 나타나는 상하간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혼합수용의 경우는 큰 아동이 어린 아동을 지도·관리하게 함으로써 보육사가 아동을 관리하는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은 있으나 어린 아동들은 큰 아동들의 보이지 않는 억압에 의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또래수용형과 혼합수용형을 복합하는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아동이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큰 아동들은 또래수용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 중학생은 혼합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은 가정을 박탈당한 아동에 있어서 생활의 거점, 즉 기본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

2) Department of Health, *Long-term Care for Elderly People: Purchasing, Providing, and Quality* (London: HMSO, 1991), p.18

3) Ibid, p.56

4) 이태수 등,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1997), p.48

권 보장을 위한 기초이다. 따라서, 정상화란 개념에서 볼 때 시설아동의 생활환경은 공동생활의 규모를 가능한 한 가족집단에 가까운 작은 집단으로 설정하고, 소규모의 생활단위마다 보육사가 배치되어 독립운영방식으로 행하게 하여 일반가정의 생활환경과 유사하게 할수록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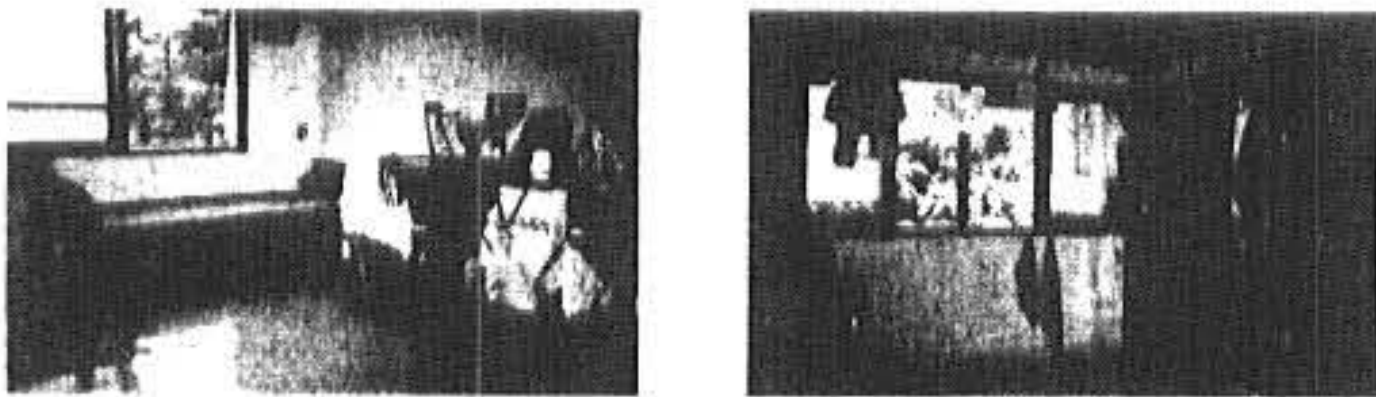
2. 3. 아동양육시설의 식침 공간 실태

1) 아동방

대부분의 조사대상시설은 아동방 내에 수납장과 아동의 개인공부를 위한 개인책상을 마련해주고 있다. 52개 조사대상시설 중 2개 시설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아동방에서는 취침, 개인공부, 놀이(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침실의 크기는 8.2~24.9m²로 그 크기가 다양하며, 1실 평균면적이 12.6~17.5m²인 시설이 31개 시설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동 1인당 침실면적은 1.4~4.3m² 정도로 나타났으며, 1실 수용인원은 2~12인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설치기준에 의하면 1실 수용인원은 6인 이하, 1인당 침실 면적기준은 3.3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시설의 경우, 6개 시설은 1실 평균 수용인원이 6인 이상, 12개 시설은 1인당 침실면적이 3.3m²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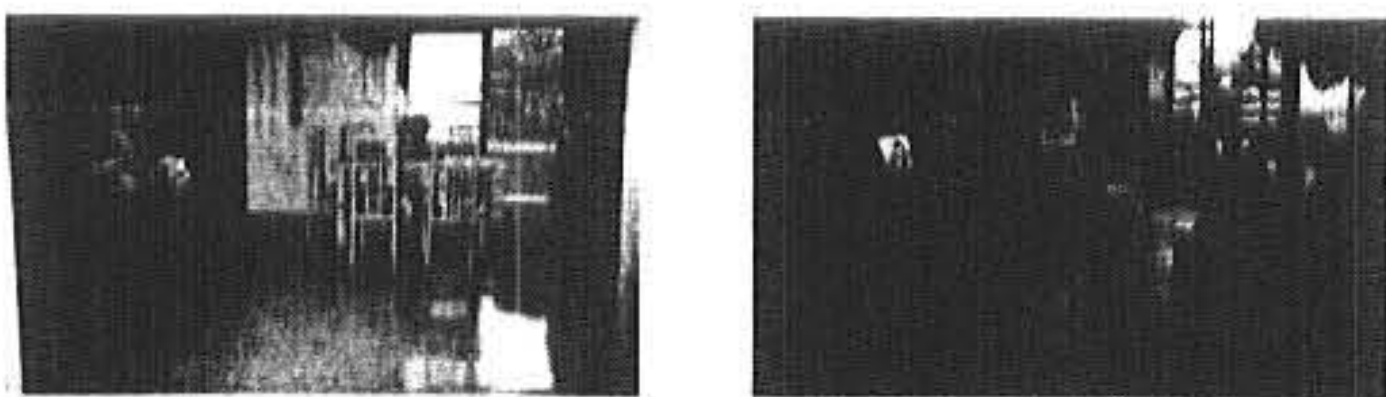
a) C₁ 시설

b) C₃ 시설

Fig 1. 아동방의 예

2) 거실

52개 조사대상시설 중 59.6%(31개 시설)는 단위공간 내에 거실이 있으며 소숙사 공동취사형과 소숙사 개별취사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시설수준에 따라 거실의 가구종류나 배치의 차이는 있으나 거실 내에 TV나 소파, 장식장, 수납장 등이 놓여져 있다. TV시청, 놀이(교류) 등 아동생활이 주로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부를 하거나 여름철에 일부 아동이 잠을 자기도 한다. 생활그룹의 구성원끼리 거실에서 식사하는



a) C₁ 시설

b) C₂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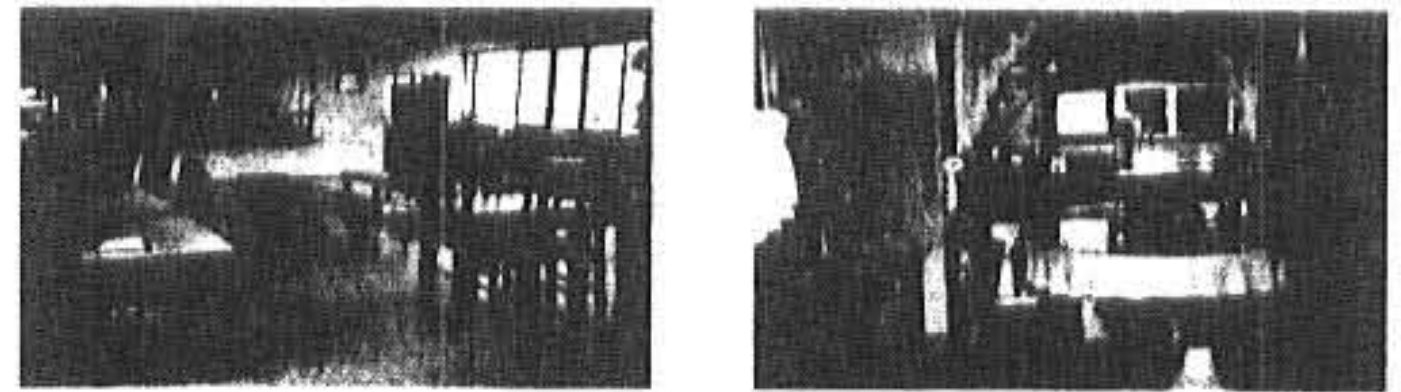
Fig 2. 거실의 예

시설도 4개 시설(7.7%)이 있다.

3) 식당

52개 조사대상시설 중 92.3%(48개 시설)는 시설전체에 식당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 전체아동이 단체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 공동취사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7.7%(4개 시설)는 구성원끼리 각 주거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당이나 혹은 거실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숙사 개별취사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설에 식당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38개 시설(73.1%)은 식사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3개 시설(5.7%)은 아동의 공부공간으로도 병용되고 있고, 4개 시설(7.7%)은 시설의 전체행사나 모임을 위한 집회공간으로도 병용되고 있다. 3개 시설(5.7%)은 공부공간과 집회공간으로도 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C₃ 시설

b) C₃ 시설

Fig 3. 식당의 예

2. 4. 아동양육시설의 주거형태

52개 조사대상시설은 아동들을 몇 개의 생활그룹(이하 그룹으로 약칭)으로 편성하여 각 그룹마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구성형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집단기숙사형(T₁) : 각 그룹별로 방 하나를 제공하고 화장실, 목욕실, 식당 등은 시설전체가 공유하고 있으며, 47.4%(27개 시설)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아동양육시설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형태로서 가정적인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으며 일종의 기숙사와 같은 형태인데 시설의 관리운영 면에서는 유리하다.

5~7명의 아동이 한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보육사는 2~3개의 방을 관리하고 있다. 취침, 공부, 놀이 등의 아동생활은 방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변과 세면, 목욕, 식사는 공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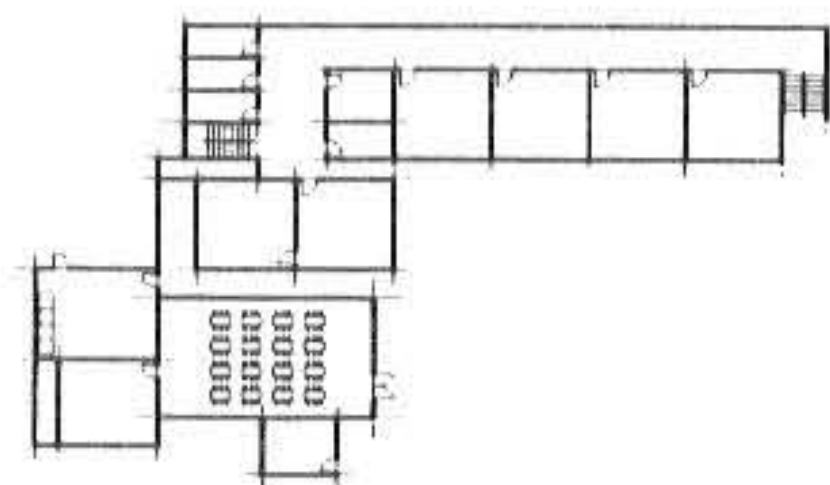


Fig 4. 집단기숙사형(T₁)평면 예 (C₃시설)

- 소숙사 공동취사형(T₂) : 각 그룹별로 방, 거실, 화장

실(욕실)을 한 단위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식당 등은 시설전체가 공유하고 있으며, 45.6%(26개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1인의 보육사와 십 수명의 아동들이 인위적인 가족을 구성하여 한 단위공간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 방에 3~4명의 아동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 취침, 공부, 놀이, 용변, 세면(목욕)은 단위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며 식사는 집단기숙사형과 마찬가지로 시설전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기숙사와 같은 분위기보다는 일반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더 느껴지지만 생활그룹의 규모가 커질 경우 여전히 집단양육·보호에서 오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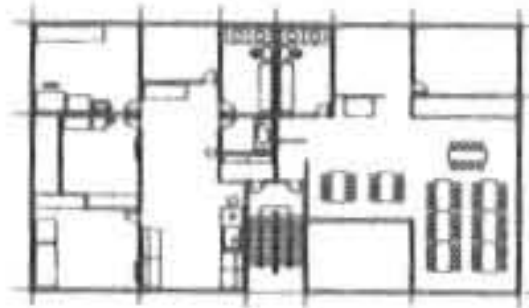


Fig 5. 소숙사 공동취사형(T₂)평면 예 (C₇시설)

• 소숙사 개별취사형(T₃) : 각 그룹별로 방, 거실, 식당, 화장실(욕실)을 한 단위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7.0%(4개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1인의 보육사와 십 여명의 아동들이 인위적인 가족을 구성하여 한 단위공간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 방에 2~3명의 아동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 취침, 공부, 식사, 놀이, 용변, 세면(목욕) 등 아동생활의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아동양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모와 같이 전적으로 아동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보육사의 부족과 운영재원의 문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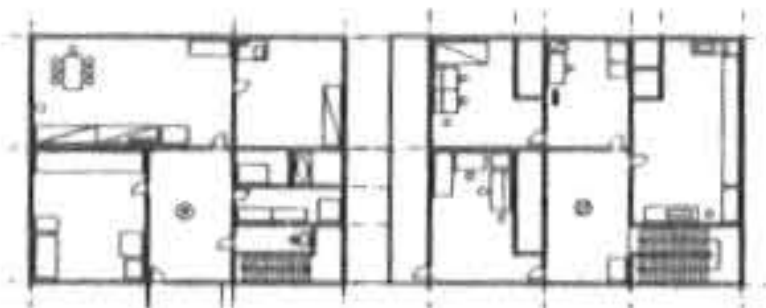


Fig 6. 소숙사 개별취사형(T₃)평면 예 (C₁시설)

이상에서 분류한 주거형태별 생활그룹의 크기는 T₁이 4~10명(크기가 12~15m²인 한 개의 아동방에 기거하는 인원임), T₂는 12~22명, T₃는 8~18명이며, 아동 1명이 차지하는 단위공간의 평균면적은 T₁이 2.3m², T₂는 4.2m², T₃는 9m²로 나타났다.

3. 주거형태에 따른 식사행위

3. 1. 식사행위의 실태

아동의 식사행위에 대해서는 시설의 주거형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52개 조사대상시설 중 소숙사 개별취사형(4개 시설)만이 생활그룹의 구성원끼리 단위공간내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으며 집단기숙사형과 소숙

Table 1. 식사행위의 실태

주거형태	시설	생활행위 사진	내용
T ₁	C ₇		저녁식사시간. 차례로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아 어린 아동은 성별구분 없이, 큰 아동은 성별로 따로 앉아서 식사함. 어린 아동들은 보육사가 옆에서 식사하는 것을 도와줌. 식사분위기가 산만함.
T ₂	C ₂		저녁식사시간. 차례로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아 성별구분 없이 어린 아동과 큰 아동이 따로 앉아서 식사함. 어린 아동들은 보육사가 옆에서 식사하는 것을 도와줌. 식사분위기가 산만하고 여학생은 남학생을 피해서 식사자리를 옮김.
T ₃	C ₁		저녁식사시간. 보육사가 식사를 준비하여 거실에서 구성원끼리 식사하는데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함. 여고생이 식사준비를 도와줌. 식사분위기가 편하고 여유있어 보임.

사 공동취사형은 공동식당에서 시설전체 아동이 단체로 식사하고 있다. 그 중 소숙사 공동취사형의 1개 시설(C₂)은 주말마다 식당에서 음식을 운반하여 생활그룹의 구성원끼리 거실에서 식사하고 있다.

소숙사 개별취사형은 아침과 저녁식사를 구성원 모두가 같이, 그리고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 공동취사형은 아침식사는 학교에 먼저 등교하는 학생부터 차례로 식당에서 식사하며 저녁식사는 시설전체아동이 같이 식사하고 있다.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 공동취사형의 경우 초등학생은 생활그룹의 구성원 편성에 관계없이 또래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나, 중학생 이상의 또래편성은 구성원끼리 식사하나 혼합편성은 비슷한 또래끼리 같이 식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2. 식사태도

조사대상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식사태도를 분석한 결과 소숙사 개별취사형의 경우는 86.8%가 만족하는 것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 공동취사형의 경우는 각각 15%, 14.9%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소숙사 개별취사형의 경우는 중·고등학생은 보육사를 도와서 식사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여유 있게 식사할 수 있어서 좋다.”,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식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가족

Table 2. 주거형태별 식사태도

구 분	식사태도(%)			
	현재의 식사 형태에 만족	불만은 있으나 그런대로 식사	새로운 식사 형태 요구	
T ₁	초	9.5	23.8	66.7
	중	17.4	26.1	56.5
	고	18.8	25.0	56.2
T ₂	초	13.0	21.7	65.3
	중	16.0	24.0	60.0
	고	15.8	21.1	63.1
T ₃	초	94.7	5.3	0
	중	81.0	19.0	0
	고	84.6	15.4	0

Table 3. 주거형태별 식사형태 요구

구 분	식사형태 요구(%)			
	거실내의 식사 공간에서 식사	식당을 소규모로 여러개 분리	공동식당에서 식사	
T ₁	초	57.1	23.8	19.1
	중	45.5	26.1	26.1
	고	43.7	31.3	25.0
T ₂	초	65.2	26.1	8.7
	중	48.0	28.0	24.0
	고	52.6	26.3	21.1
T ₃	초	94.7	5.3	0
	중	85.7	14.3	0
	고	92.3	7.7	0

에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등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 공동취사형의 경우는, 초등학생은 “식사하는데 여유가 없고 불편하다.”, “줄을 서서 급식순서를 기다리면서 형들에게 새치기를 당해서 싫다.”, “형들이먼저 식사하고 나가면서 식사를 방해한다.”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식당이 멀어서 불편하다.”, “줄을 서서 급식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 “식사하는데 여유가 없고 불편하다.”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식사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혼잡하다.”,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 “식당이 멀어서 불편하다.”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형태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태도를 살펴보면, 단위공간내의 식사공간에서 식사하기를 원하는 아동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규모의 식당을 여러개로 분리하는 것을 원하는 아동이 21.7%,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하기를 원하는 아동은 14.4%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 공동취사형의 경우 거실내에서의 식사를 원하는 아동이 각각 50%,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규모로 여러개 분리하는 것을 원하는 아동이 각각 26.7%, 26.9%, 공동식당에서 식사하기를 원하는 아동이 각각 23.3%, 17.9%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여유있게 식사하고 싶다.”, “줄을 서서 배식 받는 것이 불편하다.”, “식당이 가까우면 편할 것 같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식당이 가까우면 편할 것 같다.”, “조용하고 여유있게 식사하고 싶다.” 등 편리성과 여유 있는 식사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숙사 개별취사형은 대부분의 아동이 거실에서의 식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공간과 조리공간을

한 공간으로 설치하기를 원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거형태에 따른 취침행위

4. 1. 취침행위의 실태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들은 아동방의 구성원끼리 같이 잠을 자는데, 한방에 잠자는 인원은 3~4명이 3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명 이하가 32.2%, 5~6명이 21.1%로 나타났다. 한방에 9명 이상 잠자는 경우도 11.2%나 되었다.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집단기숙사형(T₁)은 한방에 3~4명과 5~6명이 자는 경우가 각각 23.3%이며 9명 이상 자는 경우도 20%나 되었다. 소숙사 공동취사형(T₂)은 3~4명이 한방에 자는 경우가 58.3%이며, 5~6명이 자는 경우가 40%로 나타났으며 소숙사 개별취사형(T₃)은 96.7%가 한방에 2명 이하가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T₂의 경우는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한방에 잠자는 인원이 많은 시설(4~5명 이상)의 경우 더위로 인해 거실에서 취침하는 아동도 있었다.

아동의 취침행위는 주거형태와 구성원 편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T₁(Ct₃ 시설)의 경우는 한방에 잠자는 인원이 많아 초등학생 또래편성은(취침인원이 8~10명 정도) 두 줄로 머리를 맞대고 취침하기도 하고, 초+중이나 중+고의 혼합편성은(취침인원이 6~8명 정도) 연령이 낮은 아동은 머리맡에서 자기도 한다.

방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Cb₃ 시설)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시설층의 배려에 의해서이다. T₂의 경우는 여름철에 거실에서 취침하는 아동도 있다. 취침시 한방의 구성원 편성은 주거형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또래끼리 잠자는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혼합편성(초+중, 중+고)이 33.9%, 연령차

이가 많이 나는 혼합편성(초+고)이 7.2%, 초+중+고의 혼합편성이 5.5%로 나타났다.

Table 4는 보육사와 아동의 취침형태를 파악한 것으로서 주로 주거형태와 관리 운영적인 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잠잘 때 보육사와 아동이 한방에서 같이 잠자는 경우(Table 4의 N₁)는 조사대상아동 중 0.6%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기숙사형과 같이 한 유닛 내에 보육사를 위한 별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아동 중 심리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들을 가까이서 같이 생활하면서 돌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과의 면담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이하의 어린 아동들은 “보모와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 좋겠다.”, “잠잘 때 보모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큰 아동들은 “우리끼리 장난치며 잠을 자면 좋겠다.”, “잠잘 때 보모가 빨리 자라고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며 놀다가 잠을 자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보육사와 아동의 취침형태

취침형태	N ₁	N ₂	N ₃	N ₄	N ₅
	동실형	일체형	병렬형	근접형	분리형
T ₁	○		●	●	○
T ₂	○	●			○
T ₃		●			

●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

취침행위에 대한 아동들과의 면담결과 T₁의 경우는 “잠자는데 자리가 너무 좁다.”, “옆 사람이 방해가 된다.”, “밤에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 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또래편성의 경우는 초등학생은 “또래끼리 자면 약간 무섭다.” 중학생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며 이야기하다가 자는 것이 좋다.”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혼합편성의 경우는 “잠잘 때 형들만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초+중의 초등학생), “조용히 일찍 잠자라는 형들의 간섭이 싫다.” (특히 중+고의 중학생), “잠잘 때 동생들을 보살피는 것이 불편하다.” (특히 초+고의 고등학생)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T₂의 경우는 “잠자는데 옆 사람이 방해가 된다.” 는 것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혼합편성의 경우는 “잠잘 때 형들의 간섭이 싫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조용히 일찍 잠자라는 보육사의 간섭이 싫다.” 등

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T₃의 경우는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편성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정리하면,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아동들끼리 편성된 경우는 큰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을 보살피주고 있어 보육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리상의 이점이 있고, 상하간의 갈등도 비교적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큰 아동의 개인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아동끼리 편성된 경우는 동생들이 형들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상하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취침영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성원 중 가장 연장자인 아동이 정해주거나 보육사가 정해주고 있으나 아동들이 정해진 영역과는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침영역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나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동 생활과 취침영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4. 2. 취침태도

한방에 같이 잠자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2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3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28.8%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혼자 잠자면 무서울 것 같다.”, “혼자 잠자면 심심할 것 같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혼자 잠자면 심심할 것 같다.”, “2명 정도가 인원이 적당할 것 같다.” 등이 가장 많았다. 혼자 잠자기를 원하는 아동도 18.9%나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초·중학생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자면 시끄러워서 잠자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혼자 자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고등학생은 “조용히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다가 잠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등이 가장 많았다.

취침시 한방에 같이 잠자는 인원수에 대해서 주거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T₁의 경우는 초등학생은 3~4명, 중학생은 2~3명, 고등학생은 1~3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₂와 T₃의 경우는 초·중학생은 2~3명, 고등학생은 1~2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잠잘 때 침대 생활에 대해서는 주거형태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침대 생활을 원하는 아동은 61.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68.5%, 여자는 54.5%가 침대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침대 생활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아동의 이유로는

Table 5. 취침인원에 대한 요구

구분	취침인원(%)						
	혼자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T ₁	초	4.8	19.0	33.3	28.6	9.5	4.8
	중	13.0	30.4	30.4	21.7	4.3	0
	고	25.0	37.5	25.0	12.5	0	0
T ₂	초	13.0	34.8	30.4	21.7	0	0
	중	16.0	36.0	32.0	16.0	0	0
	고	31.6	47.4	15.8	0	0	0
T ₃	초	15.8	47.4	36.8	0	0	0
	중	23.8	47.6	28.6	0	0	0
	고	46.2	53.8	0	0	0	0

Table 6. 취침시 구성원편성에 대한 요구

구분	구성원 편성방법(%)					
	혼자	또래끼리	초+중	중+고	초+고	초+중+고
초	12.1	37.4	19.4		15.5	15.5
중	14.8	45.0	21.1	15.5		3.6
고	28.3	40.5		18.5	10.5	2.2

“ 학교 친구가 침대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나도 침대생활을 하고 싶다.”, “침대에서 잠자는 것이 편할 것 같다.”, “침대에서 잠자면 폭신할 것 같다.”, “이부자리를 정리 정돈하는 것이 쉬울 것 같다.”, “청소하기에 편할 것 같다.”, “내 자리가 생겨서 좋을 것 같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침대생활을 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는 “침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플 것 같다.”, “침대에서 잠자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방바닥에서 자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 “방에서 장난치고 노는 자리가 좁아질 것 같다.”, “방에서 장난치고 노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취침 시 한방에 같이 자는 구성원 편성에 대한 요구는 주거형태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끼리 자는 것을 원하는 아동이 43.5%, 혼합편성해서 자는 것을 원하는 아동이 38.3%로 나타났다. 혼합편성을 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년의 차이가 적게 나는 아동들끼리 같이 잠자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중이 2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고의 경우로서 17%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학년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큰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와 같이 자기를 원하는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서만 약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는 보육사와 같이 자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정도별로 살펴보면 또래끼리 같이 자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중학생이 45%로서 초등학생(3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편성을 원하는 경우는 초·중학생은 초+중(각각 19.4%, 21.1%)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중+고(18.5%)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주거형태가 아동들의 취침 및 식사행위에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상에서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집단기숙사형(T₁)과 소숙사 공동취사형(T₂)에서는 거주공간과 분리된 식당에서 시설전체아동이 공동으로 식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숙사형 개별취사형(T₃)은 86.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식사공간이 연령별 또는 생활그룹별로 구분하여 소규모의 식사단위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집단기숙사형은 12~15m²의 아동방에서 4~10명의 아동이 함께 기거하는 실정이므로(T₁은 아동 1명당 평균 2.3m²로서 T₂의 4.2m², T₃의 9.0m²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생활의 효과면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한방에 잠자는 인원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2~3명, 중학생은 2명, 고등학생은 혼자 잠자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각각 33.6%, 38.0%, 34.3%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양육시설 설계시 구성원 편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이나 특성을 고려한 방의 규모와 환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권재웅, 김종영 : 육아시설의 생활공간 구성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5, No.4, pp63-72, 1999
- 2) 변용찬, 이상헌 :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3) 이태수 등 :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1997, p.48
- 4) 長尾章像 外 : 施設兒童の養護と福祉, 東京: 川島書房, 1981
- 5) 浦邊史 外 : 新版施設養護論, 京都: ネルラテア書房, 1986
- 6) Department of Health: Long-term Care for Elderly People: Purchasing, Providing, and Quality. London: HMSO, 1991, p.18, p.56
- 7) Utting, W. Children in the Public Care: A Review of Residential Care. London: HMSO, 1991

(2003년 9월1일 접수, 2003년 11월20일 채택)